

##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2006년 12월 18일

존경하는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원수로는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손님입니다.

각하께서는 중앙은행 총재와 총리를 역임하면서 재정위기 극복과 시장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민주시민혁명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에는 경제, 사법, 교육, 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이끌고 계십니다. 또한 '구암(GUAM)'의 활성화와 '동유럽 민주공동체' 창설을 주도하며 인근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각하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두 나라는 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랑할 만한 문화를 일구어 냈습니다. 높은 교육수준과 과학기술력 또한 양국이 자랑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최근 3년간만 봐도 교역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예술공연을 비롯한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진 각하와의 정상회담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항공과 IT 분야 협력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상업위성 시장의 선도국가인 우크라이나와 IT 강국인 한국의 협력은 한차원 더 높은 성과를 창조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과 교통인프라 구축, 전력·에너지 등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세계 3대 핵 보유국의 지위에 있으면서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우크라이나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건배!